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미국 여성정책관련 동향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2007년 6월 2-10일, 미국 워싱턴, 뉴욕

출장자 : 동향분석센터 문유경 소장,  
강민정 전문연구원

## I. 방문 인터뷰 내용 및 방문 기관

### 1. 각 기관에서의 여성정책 관련 연구의 메커니즘

- (1) 고객이 누구인지
- (2)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 (3) 최근 동향과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 (4) 동향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의 프로세스

### 2. 해외 정책 동향

- (1) 국내뿐 아니라 다른 각국의 젠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 (2) 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 (3)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의 최근 이슈들은 무엇인지

### 3. 미국의 여성정책

- (1)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여성정책
- (2) 각 주의 다양한 젠더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 4. 네트워크 구축

- (1)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여성정책 담당자, 여성관련 동향정보 분석 및 제공 실무자와의 연락처 공유
- (2) 동향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분석글 중 적절한 주제와 집필자가 있으면 「국제리뷰」 원고청탁

날짜	출장일정	참조
6/2(토)	한국 인천출발 (14:15) 미국 워싱턴 도착(19:42)	-샌프란시스코 경유
6/4(월)~ 6/5(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International Women's Issues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6/5(화)	워싱턴 출발(21:40) 뉴욕도착(22:56)	-항공편
6/6(수)~ 6/8(금)	-Women's eNews -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 Rutgers Univ.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Women(UNDAW) -Catalyst	
6/9(토)~ 6/10(일)	-미국 뉴욕 출발(9일 8:40) -한국 인천 도착(10일 20:55)	-도쿄 경유

## II. 각 기관 방문 결과

###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Christopher Mrozowski, Senior Program Officer

2007년 6월 4일

#### 2. 방문 기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의 Office of International Visitors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요청한 Voluntary Visitor Program은 관심 분야에 대한 미국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와의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3. 방문 주요 내용

##### 1) Mr. Chistopher의 프로그램 소개

미 국무부는 Program agency라 불리는 여러 비영리 민간 기구 중 제안서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한 단체를 선정해 제안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모든 일정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을 위탁함. 이 Program agency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일정일 이루어질 도시들을 선정하고 그 도시에 소재한 Council of International Visitor(CIV)로 제안서를 전달하여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일정 계획과 진행을 위탁하게 됨(CIV는 IVLP를 위해 미국의 각 도시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임)

Office of International Visitors에서는 이러 전 과정을 관리하고 IVP에 펀드를 제공함. 1940년에 시작되어 6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전문가와 리더들에게 미국 방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매년 4500명 이상의 참가자가 각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음.

## 2) KWDI 소개

본원의 간략한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고, 동향분석센터 특히 동향분석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번 방문 목적을 소개함.

## 3) 이번 방문기관 및 일정에 대한 소개(Mr. Chris)

본원에서 요청한 대로 다양한 여성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기적으로(6월 초) 만날 수 없게 된 Faminist Majority Foundation, Georgetown University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함. 그 외 워싱턴과 뉴욕 일정 중 방문할 기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

# ●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International Women's Issues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Deborah Emmert, Senior Advisor

Penny Rechkemmer, Foreign Affairs Officer

Siria Lopez, Senior Advisor

Aaron Hall, Intern

2007년 6월 4일

## 2. 방문 기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의 여러 국제 여성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국내 연구는 담당하지 않고 국제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여성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각기 다른 이슈마다 여성문제가 있으면 따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국무부 내에서도 주제와 지역을 나누어 국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본 조직은 10명이 일하는 작은 곳이지만, 대체적으로 국무부 내에서는 부서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므로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여 많이 분리된 조직을 갖고 있다.

본 조직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여성문제가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직 내에서는 지역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국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정부에서 한국 여성정책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요청을 해 오면 건강, 교육 등 주제에 따라서 커버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기구와의 협력관계도 나누어져 있다.

### 3) 질의 응답

- 북한도 연구하고 있는지: 북한의 경우 접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나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북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 그렇다면 각 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미 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는다

-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정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슈에 따라 다르다. 국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에 특히 여성인권 등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각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관간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 비슷한 직위를 가진 사람과 접촉해서 그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하기도 한다.

- 여성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지: 있다. HIV, 인신매매, 노동, 이주 등

- 한국의 여성정책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단계라서 동남아 국가에서 관심이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미국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조직에서는 매우 어렵다. USAID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USAID에서도 프로그램, 훈련 등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 조직은 NGO 파트너가 많다. 즉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NGO와 같이 주로 일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과 한국 여성이슈 관련해서 오가는 이런 파트너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정부와 NGO가 함께 하는 컨퍼런스 등을 만들어서 많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우리 조직은 대사관과 주로 일하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하거나 컨퍼런스 등을 만든다. 정부기관으로서 NGO를 많이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동남아 국가들이 어떻게 한국 정책에 관심을 갖는가: 최근에 본원에서 개최한 ODA 컨퍼런스에서 관련하여 네트워크 요청이 매우 많았다. 우리원의 경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여성부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이다.

- 어떻게 이 조직의 목소리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가: 레포트를 출판한다. 또한 그

기관계 관련된 NGO와 연계를 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NGO를 선택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 국가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국에 여성정책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

- 미국 내 여성문제와 국제 여성문제와의 차이는: 첫째, 폭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이다. 둘째, overall equality. 셋째,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늘리는 것이 공통적인 이슈이다.

- 각국마다 이슈도 다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 다른 국가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역사적 차이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는 「Human Rights Report」에서 나타나는데,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Freedom House”에서 아주 많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NGO 파트너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조사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NGO->대사관->OIWI->각국.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다른 국가를 연구할 때 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매우 노력한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지원하려고 노력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즉 top-down에서 bottom-up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정책만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의 여성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4. 기타 자료

기관 홍보 책자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보도록 추천함.

### ●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Vicky Lovell, Director

Amy Caiazza, Director

2007년 6월 5일

#### 2. 방문 기관

IWPR은 정책입안자, 학자, 여성과 가족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 공공 부문 집단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 연구를 사용하고 촉진하는 조직과 개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IWPR은 비영리

기구이며, 조지워싱턴 대학의 여성 연구소와 공공정책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합체와도 함께 교류하고 있다.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비영리기구이기 때문에 펀딩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총 15명의 staff). 따라서 자세한 주제에 대한 제안서를 내면 주제에 따라 펀딩하는 곳(또는 개인)의 관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 기업, 조직 등에서도 펀딩을 한다. 미 정부측에는 여성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큰 조사는 할 수 없고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선택될 만한 주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펀딩의 안정성은 펀딩을 주는 조직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발간하는 보고서는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전달을 한다. 주로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웹사이트에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는 미국 각 주의 성평등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3) 질의 응답

-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는가: 대부분은 informal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정부기구와는 독립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최근의 미국 주요 이슈는: women and politics, 일하는 여성 vs 가정주부. 미디어에서 이들의 갈등을 흥미 위주로 찾아내서 이슈화하고 있다.

- 여성들의 집단과 이해관계도 매우 다양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는가: 일단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알아보아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무엇인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을 때 여성들의 자신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이 그러한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도 많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성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이다.

- 다양한 여성들이 많은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가 사실 어렵다: 우리같은 경우는 펀딩을 주는 데에 따라 다르다. 개인 펀드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state-based women's foundation도 있다. 펀드마다 정치적 아젠다가 있기도 하다.

- 연구의 타겟은: 정책에 공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예를 들어 복지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결혼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 우리 조직은 매년 정책입안자를 위한 브리핑을 한다. 즉 press conference. 정책입안자와 네트워크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 우리 조직에 한국 여성고용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있다(현재 하노이에 있음). 관심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다.

#### 4. 기타 자료

기관 홍보 책자

Women's economic status in the states

Briefing Paper(IWPR No. R334): The Best and Worst State Economics for Women

The Status of Women in Your Country: A Community Research Tool

#### ● Women's eNews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Rita Jesen, Editor in Chief

Corinna Barnard, Senior Editor

Jennifer Thurston, Associate Editor

2007년 6월 6일

##### 2. 방문 기관

이 조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젠더의 관점을 제공하고, 여성에 초점을 둔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뉴스를 제공함. 이는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정의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의 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독자, 개인 기부자, 우리의 자료를 출판하는 상업출판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록펠러 가족 펀드, 헬네라 루빈슨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우리는 1999년 NGO로 시작했으며 독립적인 미디어 기구이다. 모든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별로 담당이 있지만 다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다. 우리는 전 세계



에서 모든 영역-정치, 종교, 경제, 보건, 과학, 교육, 스포츠, 법률-에 있어서 프리랜서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800자 내외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기자들에게 주문하는데, 그 기사는 매일 배포되고 또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다. 데드라인은 특별히 없으며, 우리 조직에는 9명의 staff가 있다. 매달 30만명 정도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유명 활동가들에 의해 작성된 논평들은 매주 수요일에 제공된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젠더를 다루는 칼럼을 게재하고, 플리처 상을 수상한 만평가 Ann Telnaes의 만평을 매주 업데이트한다.

### 3) 질의 응답

-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가: 우리들은 모두 기자이다. 젠더에 대한 편견 없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고가들이 기사거리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이메일로 일을 하게 된다. first draft를 쓰고 나면 편집을 해서 내보내게 된다. 프리랜서로 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콘텐츠는 무료이다. 주로 donation으로 운영이 되고 20%가 foundation이다. 그 외 여성이 많은 조직(기업)을 위한 paper를 쓴 적도 있다. 그리고 기사 원문 제공의 경우 돈을 받는다. 여러 국가들에서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있다.

- 기사선택의 기준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제라든가, 다른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들 즉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기고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한다. 지금 기고자들은 270여개 주제에 약 7200명 정도 있다. 이들은 영어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매주 편집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주요 기사, 기사를 선정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찾아내기도 한다.

-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가: 그렇다. 지역, 기업 등에 impact를 주고 있다.

- 사이트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대한 정보는 갖고 있는가: 방문자들을 age, gender, income, 학력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기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물어보아 정보를 갖고 있다.

- 기사를 평가하거나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리는 자문단 같은 것은 없다. 기사가 이메일로 왔을 때 편집진이 읽어보고 질을 평가하고, 이 기사가 사실에 입각했는지 주제가 중요한지,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 등에 대해 기고자에게 질문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4~5번까지도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기까지 25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린다.

### 4. 기타 자료

기관 홍보 책자

Dangerous Trends, Innovative Responses(Spring 2007)

## ●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Women(UNDAW)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Tsu-Wei Chang, Acting Chief Coordination and Outreach Unit

Sylvia Hoedosh,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leanor Solo,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sy McDougall,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7년 6월 6일

### 2. 방문 기관

UN의 gender equal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성과의 평등, 평화, 인권 등. 국제적 포럼 시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정부나 civil society와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국가 정부간 리서치 분석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UN 산하기구로서, 국제적 협상이 각 국에 성평등하게 implementation되도록 하며 그 방법을 논의한다. 즉 각국의 요구를 지원해주는 global policy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다양한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미팅, 포럼 등을 통해 CSW를 보조하는 리서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3) 질의 응답

- 최근의 미국 여성 이슈: 여성참여가 낮다는 것.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성들의 overall status가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시스템 때문에도 여성들이 후보가 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여성리더는 12명밖에 없다. 여성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진 국가로는 최근 핀란드가 처음이다. 제도적인 구조, 경제적 요인, 교육 등에서의 여성차별도 심각하다. 특히 돌봄노동의 의무 때문에 여성리더가 적은 것은 민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UNDAW의 주요 이슈는: election process이다. CSW에서도 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성들의 정치능력을 고양시키는 여러 프로그램과 훈련이 있다. 할당제 같은 경우는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변화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네트워킹, 멘토링을 위한 프로그램도 현재 추진 중이다.

- Women's right section: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각 국에 성차별적인 제도를 찾아내어 지난 5년 간 15개 케이스를 다루었고 그 중 7개를 현재 해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각 국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선택의정서에도 2개의 procedure가 있는데, 상징적 케이스(주로 개인의 사례)와 국가적 차원 두 가지이다.

- 국가간 입장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관계되어 있는 정신대 문제의 경우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려고 한다.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경우에는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는 UN의 인권이사회에서 하는 일이다.

- 본원과의 관계맺음이 가능한가: 관련하여 특별한 제도가 있지는 않다. 주로 이렇게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UN의 gender focal point, 미팅 등에 귀 원에서 방문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발간되는 보고서는 언제든지 제공 가능하다.

## ● 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 - Rutgers Univ.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Nancy Hewitt, Director

Beth Hutchison, Associate Director

Mary Hartman, Director of Institute for Women's Leadership

2007년 6월 7일

### 2. 방문 기관

여성연구기관(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은 Rutgers-New Brunswick의 인문 과학 단과SAS의 한 부분에 속해 있음.

회원 구성원들인 900명의 교직원과 대학원생, 우수한 학부생들은 세 개의 캠퍼스로의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 활동은 다양성, 보건, 이주, 여성주의 운동, 여성주의 학문, 노동 등. IRW의 프로그램은 범위에 있어 국제적이며, 또한 Rutgers 대학 공동체 내의 현재 이슈들도

다루고 있음.

영어과, 역사학과, 노동과 고용관계연구, 여성과 젠더 연구, 현대문화비평센터, 라티노 문화연구센터, 역사분석센터, 국제노동일하는 계급역사연구회(ILWCH), 아시아미국인문화센터, 여성리더쉽센터 등과 공동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함.

IRW의 운영(집행)위원회는 IRW의 현재와 미래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참가자들의 폭 넓은 학문 관심사를 대표하고 있음.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다학제간 페미니스트 연구의 최선봉에 있는 연구기관.

90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학제간 포럼, 강의, 세미나 그리고 외부 객원연구원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음.

SAS의 지원과 함께 학문지원을 위한 부총장부서, 학생지원을 위한 부총장 부서, Rutgers 연구 위원회, 록펠러 기금, 인문학 국가기부금, 포드 재단,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어메리칸 위원회 학회, 뉴저지 주, 뉴저지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매우 한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되어야 하며, 채택된 학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에 제공됨. 교직원과 대학원생, 박사과정 연구생에게 매주 학제 간 최근 주제에 대한 연구 세미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구성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정교수에서부터 박사과정 수료생들까지 이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편임.

IRW의 프로그램은 학제간 포럼, 강의,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과 해외의 최고 석학들과 함께 여성과 젠더에 대한 혁신적인 학문을 장려하고 있음.

1997년부터 Institute for Women's Leadership과 협력하여, IRW는 다양한 학과, 전공, 단과대의 우수한 대학원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이며, IRW 도서관에서 개최됨. 세미나는 공개이지만, 참가자들은 논의될 자료를 미리 읽어야 함. 공개강좌보다는 세미나는 연구자들의 진행 중인 과제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과 방법론으로부터의 집중된 토론을 진행함.

매년 가을, IRW는 세 캠퍼스의 교직원, 학과장, 대학원생들에게 다음 해의 세미나의 참가 신청서를 배부함. 인문과 과학 교직원회와 학문지원을 위한 부총장부서의 지원으로, 최대 8명의 교직원들과 4명의 대학원생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수업 제

외시간 또는 연구 기금/장학금을 받게 됨.

2006-2007년 세미나는 “보건(건강)과 몸”. 이주에 초점.

2007-2008년 세미나는 “공동체 연구”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 연관된 강의 시리즈를 조직하며, 초청 교수들을 안내하는 것과 함께 콜로키움, 컨퍼런스, 비공식만남, 국제 방문객 단체를 안내하는 일도 함.

### 3) 질의 응답

- 학제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value of work. 각자의 전공을 뛰어넘는 공통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어렵다. 매년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주제가 달라져서 long-term 진행이 아쉽다.
- 여성과 관련 주제 전공자를 확보하거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박사과정생들이 참여하는 여러 Dept.에 strong program이 있다.
- 우리 조직에는 Women in Work와 American Women in Politics 2개의 센터가 있다. 첫 번째는 좀 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여성연구의 역사는 30~35년 정도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연구와 관심주제를 소개해 왔다.
- 여기의 연구를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싱글맘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는데, 뉴저지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삭감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성문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연구가 게토화되어버렸다. 사실상 현재 정부는 여성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 학교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예산을 깎기도 한다. 작년에도 40%나 삭감했다. 내년에 새로운 director(3년마다 바뀜)가 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 한국에 ‘성 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있다. 2010년부터 모든 부처에서 여성을 위한 예산 책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좋은 사례로 고려해보기 바란다.
- 본 연구소와 같은 캠퍼스(더글라스 캠퍼스)에 있는 여성리더십센터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7개의 다른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20명 정도의 학생이 해마다 있다. 전공은 매우 다양하며, 컨퍼런스, 교육훈련, 웹사이트 등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리더십 교육을 private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7년 정도 교육을 해 왔는데, 리더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25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기업에서 리더로 일할 기회를 어떻게 얻어내는가, 한국의 경우에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여성상급자가 왜 적은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황도 나쁘지만 보고 자체도 형편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여성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여 서포트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해 조언이 있다면: 기업과 정부가 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휴버 험프리 프로그램이 있다.

#### 4. 기타 자료

연구소 홍보 책자

2007년 세미나 프로그램

IRW network, spring 2006

Nancy Hewitt. 2004. *Southern Discomfort*

### ● Catalyst

#### 1. 방문 면담자 및 방문일시

Laura Sabattini, Director

Cheryl Yanek, Associate Librarian

2007년 6월 8일

#### 2. 방문 기관

1962년에 설립되었고, 비영리 연구 기관이며 글로벌 조직이다. 여성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회를 확장하고 그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관련하여 340개 우수 기업, 법인, 비즈니스 스쿨,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본 조직은 비즈니스와 그 변화 요구와 연결되어 있고 작업장에서의 여성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자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Catalyst Award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촉진하도록 기업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3. 방문 활동 및 협의 내용

1) KWDI 소개, 동향분석 업무 소개, 이번 방문 목적 소개

2)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연구부서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에서 펀드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해마다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다. 민간 쪽 펀드가 대부분이고 대학 등도 있다. 우리는 기업에서의 여성 senior level에 관심 있다. 연구들은 대부분 웹사이트에 pdf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3) 질의 응답

- 귀 조직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관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미국에서의 여성리더십. 둘째, 기업에서의 여성연구. 이는 대부분 동향을 조사하는 서베이로 이루어진다. 셋째, 작업장 조사. 이들은 모두 사회과학의 배경 하에 이루어진다. 최근에 하고 있는 조사를 소개하면, 하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서의 여성리더십, 조직 문화에 대해 전화조사, focused group study 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직에서 여성들이 승진하지 못하게 하는 informal rule을 찾고자 한다.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어떠한지 멘토가 어떤 사람인지, 그룹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있다.

또 다른 연구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웹사이트에 가면 정보를 볼 수 있다.

- 우리조직은 역사가 4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fortune 500 기업에 여성 CEO가 1명이었다. 45년 동안 여성 리더가 많이 늘어났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award 대상 기업들로부터 fee를 받는다. award 측정에는 corporate board 여성 수, CEO 여성 여부 등 다양한 지표가 있다. CEO 여성 여부는 그 중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특히 중간관리자에서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관심 있다. 도대체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 정부와의 관계는: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 그렇다면 기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리서치에 지원하는 기업의 스폰서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기업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35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여성을 늘릴 것인지가 역시 하나의 과제이다. 어떻게 기업과의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처음에 시작될 수 있었는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CEO 친구 즉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기업에도 benefit을 주어야 한다.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개념과 정도가 한국과 미국이 아무래도 다를 것이다. 교육받은 많은 여성들이 sleeping giant이다. 기업에게 이런 여성 인재를 활용 못하는 것의 불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 4. 기타 자료

기관 홍보 자료

Connection that Count: The Informal Networks of Women of Color in the US

The Bottom Line

The Double-Bind Dilemma for Women in Leadership

Women "Take Care," Men "Take Charge"

Different Cultures, Similar Perceptions